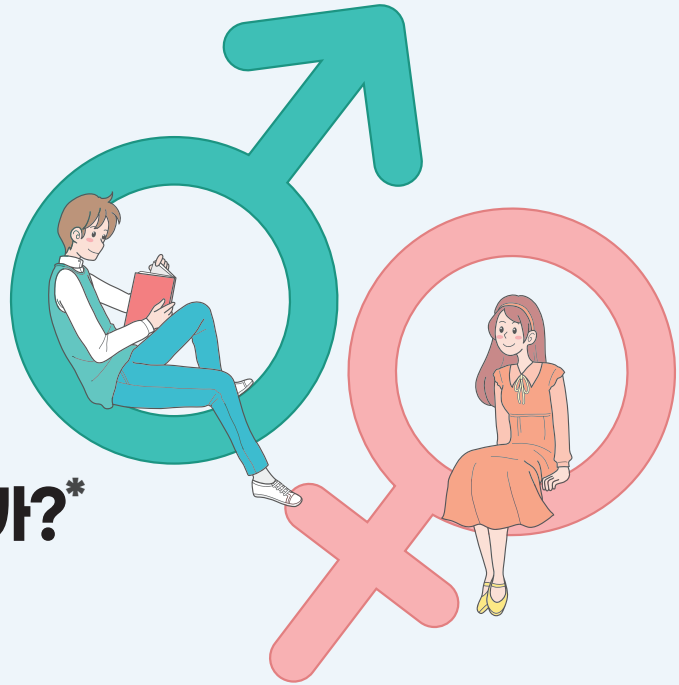


## 성매매에 연루된 아동·청소년은 모두 피해자로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저희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십대/여성/사이버 성착취 피해 지원과 성인권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피해에 대한 통합적인 예방, 지원, 치유 활동과 성착취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인 인식과 행동의 변화를 통해 십대 여성의 성인권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재 여성가족부와 서울시로부터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 상담소 및 사이버포대상담사업과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서울)를 수탁·운영하고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다

2020년 4월 30일 새벽,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보다도 성매매에 연루된 아동·청소년을 자발/강제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통칭하기로 한 점일 것입니다. 그것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선거권, 피선거권도 주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 이 글은 조진경(2020),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과 나아갈 방향”, 아동복지전문연구지 『동광』 2020년 통권 115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필자가 쓴 글을 일부 편집, 인용하였음을 밝힌다.

도 없고, 더 나아가 혼인이 가능한 연령도 만 18세부터인데,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겠다는 결정을 아동·청소년이 성인과 ‘자발적’으로 했다는 이유로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받아야 하지만, 아동·청소년이므로 ‘보호처분’을 한다는 그 이상한 법률이 역사상 폐기되었다는 말입니다.

성매매에 이용되는 아동·청소년들은 대부분 가정이나 학교로부터 유기, 방임, 학대, 차별, 폭행당하는 경험을 하였고, 겨우 집으로부터 도망나오지만, 결국 아동·청소년들의 몸을 성적으로 노리는 성 착취자들로부터 성폭력, 성매매에 이용당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지원기관과 연결이 되었다 하더라도 개정 전 법률에서는 아동·청소년이 가출 상황에서 있을 곳과 먹을 것을 위해 성인들의 성매매 제안에 응했다 하더라도 자발적이라 하여 성인 성 착취자들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상황에서 지원기관 역시 이 아동·청소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은 법률지원을 위해 의료기관의 소견서 하나를 제출하려 해도 의료기관에 부모가 직접 가야 했습니다. 이렇듯 아동·청소년 혼자서는 신고조차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이버 성착취 산업은 점점 더 많은 아동·청소년들을 성착취 시장으로 끌어들이어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였고, 수많은 아동·청소년들이 성매매 강요, 사망, 살해, 감금, 에이즈 감염 등으로 피해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해질 때까지 결코 그 범죄에서 벗어나오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우리 사회에서는 결국 n번방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드러나 온 국민을 분노와 두려움으로 들끓게 만들었고, 이 사건을 통해 겨우 ‘아청법’이 개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청법’이 왜 바뀌어야 했는지를 아래 사례를 통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온라인 그루밍을 통한 성폭력/성매매 사례

초등학교 아영이는 친구들과 놀다가 채팅 어플에 대해 듣게 되었다. 호기심에 채팅 어플을 내려 깔고 채팅방에 입장하자 수많은 쪽지들이 도착하였다. 재미있고 신기한 마음에 쪽지들을 열어봤지만 쪽지의 대부분은 용돈 제공, 조건 만남 요구였다. 단순 대화를 원하는 쪽지에 답장을 보내면서 남성 A와 대화를 하게 되었다. 자신을 30대라고 소개한 A는 아영이에게 페이스북 아이디를 요구하였고, 별 생각 없이 아영이는 아이디를 보내 주었다. 그 후 A는 수시로 문자를 보내며 인사를 하였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일어났어? 학교 가야지 우리 공주님”, “잠꾸러기~ㅋㅋ”, 오후에는 “학교는 잘 다녀왔어?”, “오늘은 어떻게 보냈어?”라며 일상생활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A는 아영이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재학 중인 학교는 물론 관심사나 취향, 크고 작은 심리 변화까지 파악하고 있었다. 대화는 물 흐르듯 흘렀고 A는 SNS를 통해 기프티콘과 문화상품권을 보내며 아영이의 환심을 샀다. 집안 형편이 어려운 데다 부모님이 안 계셨던 아영이는 “예쁘다”, “보고 싶다”며 애정을 주는 A와의 대화가 즐거웠다. 그러던 중 A가 “여자친구와 헤어졌는데 마음이 아프다. 너는 남자친구가 있냐? 어디까지 가 봤냐? 뽀뽀는 해 봤냐?” 등 성적인 주제로 대화를 이어가려 하자 아영이는 대화를 종료하였다. 그러나 A는 끈질기게 아영이에게 쪽지를 보내고 포기하지 않았다. 대화가 끊어지고 다시 심심해진 아영이는 결국 A와 다시 대화를 하게 되었다. A의 집요한 성적인 질문에 아영이는 마치 자신이 남자친구가 있고, 그 남자친구와 성적 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꾸며 대화를 이어갔다. A는 아영이에게 자신과 한번 만나 줄 것을 요청했다. 아영이는 성인 남성과 만나는 것이 겁이 나 거절하였지만, A는 “여자친구와 헤어져서 너무 외롭다.”며 매달렸다. 아영이는 “나는 초등학교생이다.”라고 했지만, A는 “나는 초등학교생 따먹는 게 로망이다”며 줄기차게 매달리며 졸랐다. A는 자신의 차 안에서 자위하는 모습을 보기만 해 주면 용돈을 주겠다고 아영이를 졸라댔고, 호기심과 용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보기만 해 주겠다’며 A와 만나기로 하였다. 처음 만난 날 A는 차 안에서 아영이와 단둘이 있으면서 아영이에게 애원하고 설득하는 방법으로 성행위를 시도하고 헤어졌다. 그후에도 A는 지속적으로 아영이가 좋아하는 딸기우유나 오징어 등을 사 주고 무인 모텔로 데리고 가 수차례 성폭행하고 용돈을 제공하였다. 이런 일을 겪었지만 아영이는 이 상황을 성폭력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우여곡절 끝에 A는 신고가 되었고, 경찰에 잡힌 후 A가 50대 남성으로 2명의 성인 아들이 있음이 밝혀졌다.

이 사건을 ‘아청법’이 개정되기 전, 수사기관에서 수사한다면, ‘성폭력’ 사건으로 수사하게 될까요? 아니면 ‘성매매’ 사건으로 수사하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성폭력’ 사건으로 수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 아동과 성착취 가해자와의 성행위가 피해 아동의 연령 만 13세를 하루만 넘겼다 하더라도, 이 사건은 당연히 ‘성매매’ 사건으로 수사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피해 아동이 성폭력, 성매매에 이용되기까지 가시적인 강요나 감금, 폭력 등이 없었기 때문에 성폭력이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용돈과 간식, 모텔비 제공 등을 대가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성매매 사건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성격은 정확히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은 명백하게 온라인 그루밍을 통한 ‘성폭력’과 ‘성매매’ 사건입니다. 사실 아동·청소년의 경우 성폭력 피해와 성매매 피해가 분리되지 않고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반드시 성폭력 피해자와 성매매 행위자로 분리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범죄의 피해를 모두 당한 한 아동·청소년에게서 어떻게 성폭력과 성매매를 구별하려 하는지, 왜 구별하려 하는지 이 대목에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해에도 위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면, 피해자로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성매매 피해를 당했다면 아동·청소년에게 그 책임을 물으려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위 사례의 피해 아동은 개정 전 법률대로 하자면 소위 ‘자발적’ 성매매를 하였다 하여 ‘보호처분’<sup>1)</sup> 까지 받게 됩니다. 보호처분은 비행을 저지른 아동·청소년을 위해 국가가 행하는 강제 보호나 교육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은데, 실제 아동·청소년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돈으로 유인하여 성적으로 학대하는 행위를 일삼는 성매수자들은 아동·청소년들이 부모나 친구, 학교 선생님들에게 알려지게 될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사실과 신고하면 보호처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협박을 합니다. 결국 가장 도움이 절실한 아동·청소년들이 처벌이 두려워 성 착취자들을 신고조차 하지 않아 성 착취자들에게 가장 안전한 결과만을 가져올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법률이 개정되어,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의제강간으로 보아야 할 아동·청소년의 연령을 만 16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성매매에 연루되었다면 아동·청소년들은 모두 피해자로 보고 성인만을 처벌하게 하는 법률로 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 개정된 ‘아청법’이 시행된 이후 변화는?

2020년 11월 20일, 개정된 ‘아청법’이 시행되면서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은 모두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규정 신설과 신분 비공개 수사와 신분 위장 수사 허용 특례 규정이 신설되어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입법적으로 그동안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변화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이 같은 변화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법이 개정되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여 과

1)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감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거의 관행대로 아동·청소년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피의자 조사를 하거나<sup>2)</sup>, 수사관이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성매수/알선업자와의 합의를 종용하고<sup>3)</sup>, 함정수사를 통해 발견한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성매매 광고 혐의로 입건하는 등 법 개정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서 공권력에 의한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교육기관 등 아동·청소년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기관조차도 법 개정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어, 피해 아동·청소년들에게 책임을 묻거나 비난과 낙인의 대상으로 대하는 등 개정된 법의 실효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피해 아동·청소년들에게 자신이 피해자이며,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없게 하여 법은 사문화되고 현실은 법 개정 전의 상황이 계속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n번방 성착취 사건 이후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관련한 다양한 입법과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들은 여전히 보호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으며, 디지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으로서 보호·지원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세계 속 다양한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피해 속도와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성범죄자들의 범행 수법은 갈수록 악랄해지고 교묘해지며, 피해 아동·청소년의 연령은 갈수록 낮아지는 것이 현실적 문제입니다.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개정된 ‘아청법’은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아예 삭제하고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지칭할 때 ‘성착취’로 용어를 바꿔야 합니다. 그것은 성매매라는 용어 자체가 기본적으로 상호 대등한 관계를 전제로 한 행위로 본다는 의미에서 동의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성매매 용어 자체에 자발성이 내포돼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성폭력 범죄와 성매매 행위는 용어 자체로 차별성이 있다고 봅니다.<sup>4)</sup>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경우, 성인 성매수자와의 관계에서 볼 때 신체적, 정신적, 심

2) 성착취(성매매 등) 피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는커녕 피의자로 조사하고, 범죄자 취급한 수사기관(수사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다.”, 심대여성인권센터 2021. 8. 31. 보도자료 참조 [http://www.teen-up.com/load.asp?sub\\_p=board/board&b\\_code=1&page=1&idx=3636&board\\_md=view](http://www.teen-up.com/load.asp?sub_p=board/board&b_code=1&page=1&idx=3636&board_md=view)

3)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는 목살하고 범죄 수사조차 하지 않은 수사기관을 고소·고발한다.”, 심대여성인권센터 2021. 5. 11. 보도자료 참조 [http://www.teen-up.com/load.asp?sub\\_p=board/board&b\\_code=1&page=1&idx=3593&board\\_md=view](http://www.teen-up.com/load.asp?sub_p=board/board&b_code=1&page=1&idx=3593&board_md=view)

4) 이런 이유 때문에 성폭력 전담 수사관들이 훨씬 성매매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자발성과 그에 기초한 책임성에 초점을 맞춘다. 성폭력 전담 수사관들이 성폭력=강제=피해자, 성매매=자발≠피해자라는 신념이 강하다는 것을 현장에서 많이 경험하게 된다. “성매매 용어는 그 자체로 낙인일 뿐이다”.

리적, 법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모두 대등하지 않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우월한 성인과 대등하게 보이게 하는 이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우리 사회의 의식이 성숙해져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돈으로 유인하여 성착취하는 범죄로 인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아동·청소년이 성매매·성착취 위험에 노출되고 있을까요? 성착취 정황에 놓여 있을 위험성이 높은 아동·청소년들의 경향을 정리한 체크 리스트를 소개하면서 이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 교육기관 혹은 수사기관에서는 이런 상황의 아동·청소년을 눈여겨 봐 주세요!

### 성매매·성착취 범죄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check list)

- 아동학대, 성폭력 등 성적 학대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
- 현재 신체 학대의 증후가 있거나, 성병 감염의 증후가 있는 아동·청소년
- 가출 경험이 있거나, 현재 가출 중인 아동·청소년
- 일정 기간 동안 행방불명되었거나 규칙적으로 집에 늦게 들어오는 아동·청소년
- 규칙적으로 학교를 빠지거나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아동·청소년
- 착취에 연루된 다른 아동·청소년과 어울리는 아동·청소년
- 위기 아동·청소년 돌봄 시스템에 속한 아동·청소년
- 자신의 상황에 맞지 않는 고가의 선물, 의류, 핸드폰 등을 가진 아동·청소년
-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성인과 연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 또는 가까운 성인과 부적절한 의사소통(예를 들어, 성적인 대화 또는 지시, 명령 등 통제적으로 보이는 상황)의 관계로 보이는 아동·청소년
- 잘 수행해 왔던 이전 활동에 대해 관심의 부족이나 철회를 보이는 아동·청소년
- 기분이 자주 바뀌고 감정적인 안정이 안 되는 아동·청소년
- 폭력 단체에 가입하거나 폭력 혐오를 조장하는 사이트 등을 자주 방문하는 아동·청소년

### 필자 소개

성매매가 암묵적으로 허용되던 사회적 분위기에서 성매매 특별법 제정에 기여하였고, 성매매에 연루된 아동·청소년들을 범죄자로만 보는 사회적 시각을 넘어, 성착취 피해자로 규정하고 예방, 통합지원, 치유와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수행중이다. 최근 n번방 사태가 세상에 알려지는 과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큰 기여를 하였다.